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물가에 치인 미국인들, “어떤 제품들은 가격이 내렸네”
- WSJ: 물가 하락은 확실한 듯... 여전히 2% 목표 상회하지만
- Bloomberg: 북미주 가뭄, 주요 농산물 공급 위협
- Bloomberg: 엘런 장관, “공급망 회복되고 연착륙 가능하다”

[미국 금융]

- Bloomberg: 골드만삭스, “침체 불구 미 주식 랠리 가능하다”
- CNN Business: 주요 은행들 실적, 투자자들 실망시켜

[뉴저지 교육]

- WSJ 사설: 왜 뉴저지 주지사는 ‘차터스쿨’을 싫어하는가?

[IRA]

- WSJ 사설: 바이든은 EV보조금 관련해 맨친 의원을 방해한다

[글로벌 경제]

- Bloomberg: 2023년, 세계 경제 연착륙 할 수 있을까?
- WSJ: 중국 수출 감소...성장 동력 잃을까 우려돼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테슬라, 판매 촉진하려 자동차 가격 20%까지 인하
- Bloomberg: Artizia는 어떻게 미국에서 가장 ‘핫’한 패션 체인이 되었나
- CNBC: 나이키 CEO, 팬데믹 불구 “중국 Z세대 수요 강하다”
- WSJ: UnitedHealth, 보험료 올려 수입 증가
- CNN Business: 펩시, 무설탕 음료 레시피 바꾼다
- Tech Crunch: SmartNews, 미국, 중국, 일본에서 대규모 감원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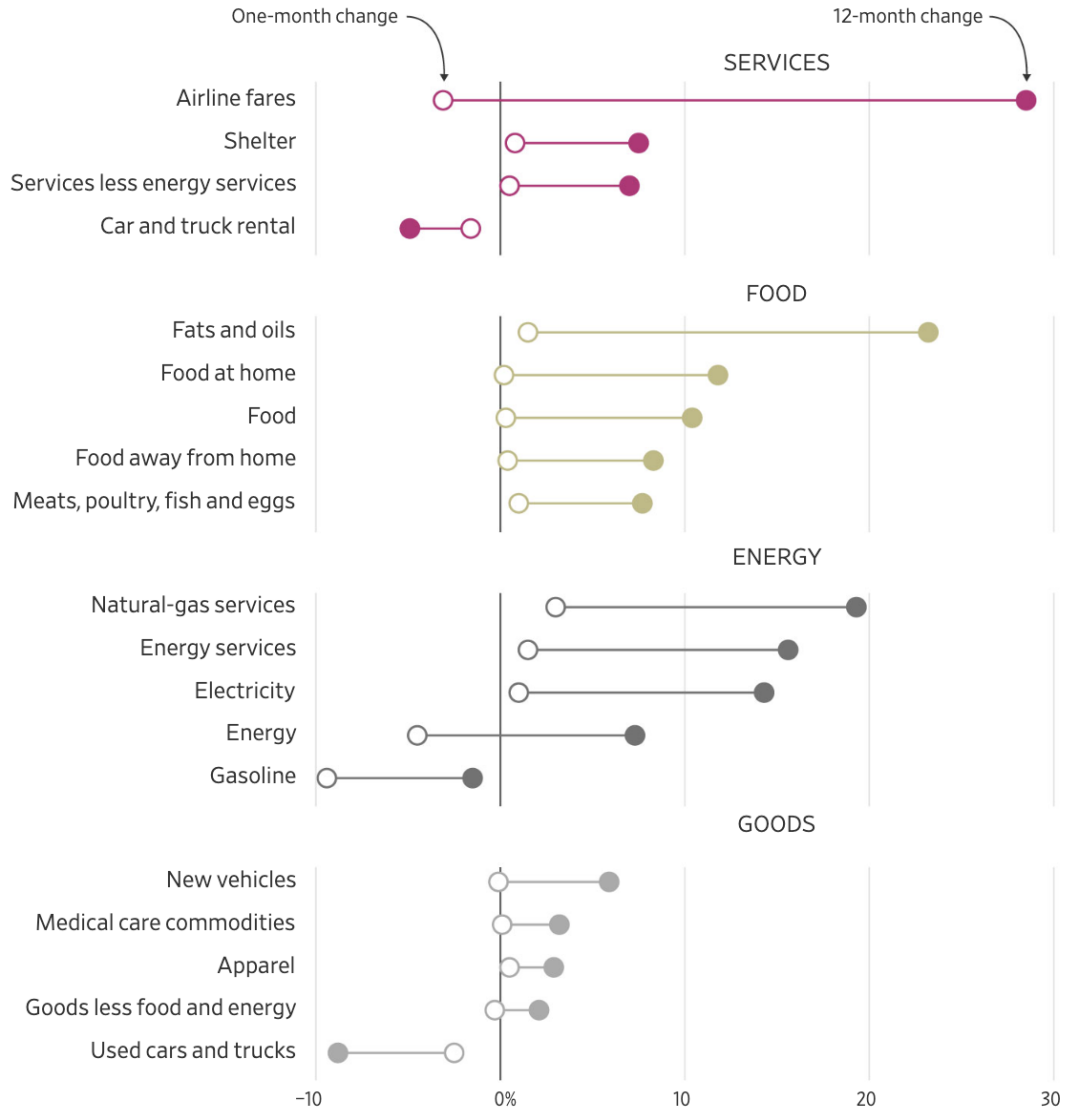
WSJ: Inflation Weary Americans Find Some Relief as Prices Fall for Dozens of Products

물가에 치인 미국인들, “어떤 제품들은 가격이 내렸네”

-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율로 보았을때 여전히 높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 6.5% 올랐다.
- 조류 독감으로 치킨이 몰살되면서 계란 값이 올랐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그로서리 가격이 올랐다. 12월 그로서리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8% 올랐다. 빵, 시리얼, 쿠키도 인상됐다.

- 반면에 같은 고기(Ground beef)와 밀크, 신선 야채가 떨어졌다. 에너지 가격, 특히 가솔린 가격이 떨어졌고 중고 자동차와 트럭 가격도 연간 8.8% 떨어졌다. 신차는 연율로 5.9% 상승했다.

Consumer-price index, select items



Note: One-month change is seasonally adjusted, while 12-month change is unadjusted.
Source: Labor Department

WSJ 기사

WSJ: Inflation Is Turning the Corner

물가 하락은 확실한 듯... 여전히 2% 목표 상회하지만

- 물론 물가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 2%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 그러나 연준의 물가와 전쟁으로 인해 주택가격 등은 하락하고 있다. 고금리 정책 때문이다. 특히 미 가솔린 가격도 작년 6월 최고치 갤런당 5달러

에서 현재 3달러 27센트다. 전반적인 인플레이율이 6.5%로 하락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수 있다.

- 그동안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는 가격이 급등했지만 팬데믹이 물러남에 따라 부품 부족 현상도 개선되면서 해당 제품들에 대한 수요도 둔화되었다.
- 그러나 연준은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침체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연착륙 가능성도 조금 늘고 있는 상황이다.

12-month change in prices and wages



*Core prices exclude food and energy

Source: Labor Department (total and core prices, earnings); Omair Sharif (core services excluding shelter)

WSJ 기사

Bloomberg: Drought in Americas Threatens Outlook for Crucial Crop Supplies

북미주 가뭄, 주요 농산물 공급 위협

- 우선 미국 정부는 가뭄으로 인해 미국내 옥수수과 콩 공급 물량 예상치를 갑작스럽게 줄였다.
- 아르헨티나의 경우 전세계 최대 콩과 콩기름 수출 국가인데 시키고 콩 선물시장에서 지난 9개월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거래자들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상대적으로 수확이 많은 오일시드(oil seed)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 한편 조류 인플루엔자로 일본 정부는 질병 억제 차원에서 1천만 마리를 살 처분했다. 철도 운행 중단으로 캘리포니아 가금류 농장으로의 옥수수 선적도 지연되면서 수백마 마리의 닭이 굶고있는 상태다. 계란이 들어가는 마요네즈 공급 문제도 커지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Yellen Sees Turnaround of Supply Chains in US Inflation Data**옐런 장관, “공급망 회복되고 미 경제 연착륙 가능하다”**

-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은 오늘 금요일 아침 National Public Radio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가격 압박 일부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면 최근 인플레이션을 환영했다.
- 그는 “이같은 가격 하락 외에 상품 가격이 실제 떨어지고 있고, 상품과 원자재 가격을 압박한 일부 공급망 이슈도 실제 회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임대료가 상승했다면서 우리는 향후 6개월쯤해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그는 “아마도 연준이 실업률을 크게 올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Goldman's Wealth CIO Says US Stocks Could Rally Despite Recession****골드만삭스, “침체 불구 미 주식 랠리 가능하다”**

- 골드만삭스 chief investment officer 직책을 갖고 있는 Sharmin Mossavar-Rahmani의 입장은 이렇다. 설사 미국 증시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지만, 미국의 향후 침체가 주식 시장에 나쁜 뉴스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올해 S&P 500은 12% 정도 반등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물론 완전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고 해도.
- 그는 “현재의 벨류에이션이 침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벨류에이션의 회복이나 리셋이 상당부분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 골드만삭스는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을 45-55%로 보고 있다.
- 이같은 입장과 다른 월가 전략자들이 있다. 모건 스탠리의 Michael Wilson은 주식이 경기 둔화의 여파를 여전히 평가절하하고 있다며 주식은 22% 하락하고, 올해 S&P500 상승 폭은 2%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Bank earnings fail to impress investors as recession worries rise**주요 은행들 실적, 투자자들 실망시켜**

- JPMorgan Chase, Bank of America, Citigroup, BlackRock의 금요일 실적은 월가의 예상을 상회했지만 투자자들은 실망스러웠다. 이를 반영하듯 오늘 금요일 오전 이들의 주가는 약간 하락세로 출발했다. 은행들의 향후 인플레이 우려와 침체 가능성 예상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때문이다.
- JP모건 CEO는 진행중인 지정학적 불안감, 에너지와 식품 공급의 불확실성, 계속적인 인플레이 고공행진 등 어두운 전망을 발표했다.
- 한편 JP모건은 지난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104억달러)보다 6% 늘어난 110억달러를 기록했다. 씨티그룹은 지난 4분기 매출 18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순이익은 25억달러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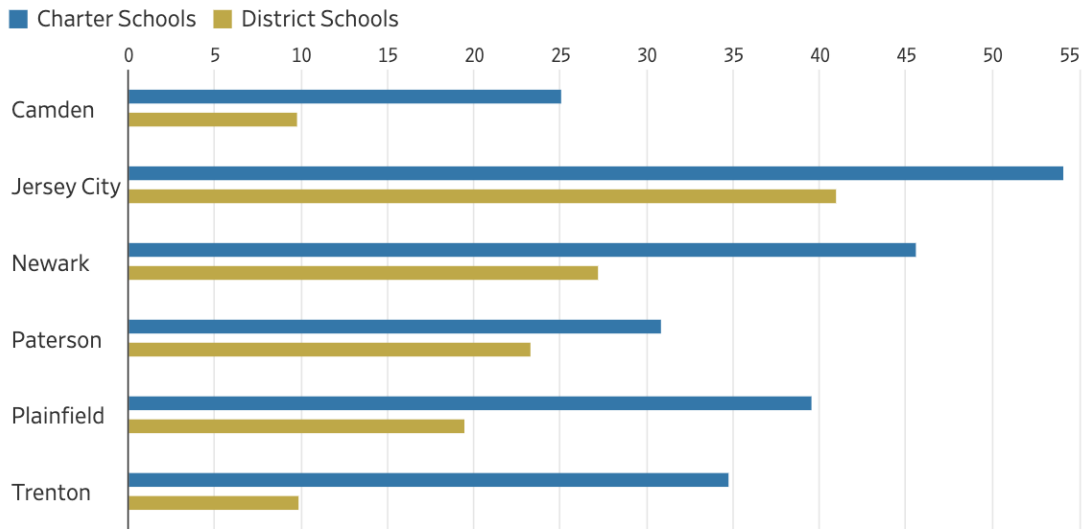
CNN Business 기사

[뉴저지 교육]**WSJ 사설: Why Does New Jersey Gov. Phil Murphy Hate Charter Schools?****왜 뉴저지 주지사는 '차터스쿨'을 싫어하는가?**

- 뉴저지의 Charter schools은 주변의 공립학교들 보다 독해 및 수학실력 성적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도시인 캠던, 저지시티, 뉴악, 패터슨, 플레인필드, 트렌턴 지역의 차터스쿨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공립학교들보다 성적이 높다.
- 그런데 이들 차터 스쿨들이 입학생들을 늘려달라는 허가신청이 거부되고 있다. 2월에 다음번 허가 신청에 대한 가부 여부를 주지사는 내려야할 상황이다. 주지사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공립학교 노조의 영향력에 민감하다.
- 자신의 캠페인을 돕는 노조 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정치인이 되어 하지 않을까?
- 차터스쿨: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만 운영은 자율적인 요소가 많은 '반공립 반 사립' 학교 성격이 강하다.

The Charter School Advantage in New Jersey

Student proficiency in English language arts for all grades in the six cities with the largest charter-school presence, 2022



Source: New Jersey Public Charter Schools Association

WSJ 기사

[IRA]

WSJ 사설: Biden Snookers Joe Manchin Again 바이든은 EV보조금 관련해 맨친 의원을 가로 막고 있다

- 연방 재무부는 지난달 말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 임시 시행령을 발표했다.
- 외국 정부와 일부 미국 전기차 생산업자들의 불만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말에 “소비자들에게 리스된 전기차는 북미 생산에 포함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는 이른바 ‘상용 클린 자동차’로 간주한다”고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신규 전기차의 28%가 리스 차량이다. 많은 전기차 운전자들은 리스를 선호하는데 배터리 기술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데다 이들은 리스 용자가 더 매력적이게 보이기 때문이다.
- 이에 조 맨친(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부유층 구매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지 말도록 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에 양보한 상황에서 재무부의 ‘위험한’ 임시 시행령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는 “재무부가 법의 원래 의도를 왜곡하고,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법의 허점을 찾으려는 상황에 굴복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재무부의 조치를 막는 별도 IRA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재무부는 법의 원래 의도를 반영한 조 맨친 의원의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
- 참고: 조 맨친 의원은 EV 전기차 당초 의무사항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연방 상원 ‘에너지 및 천연자원 소위원회’ 위원장이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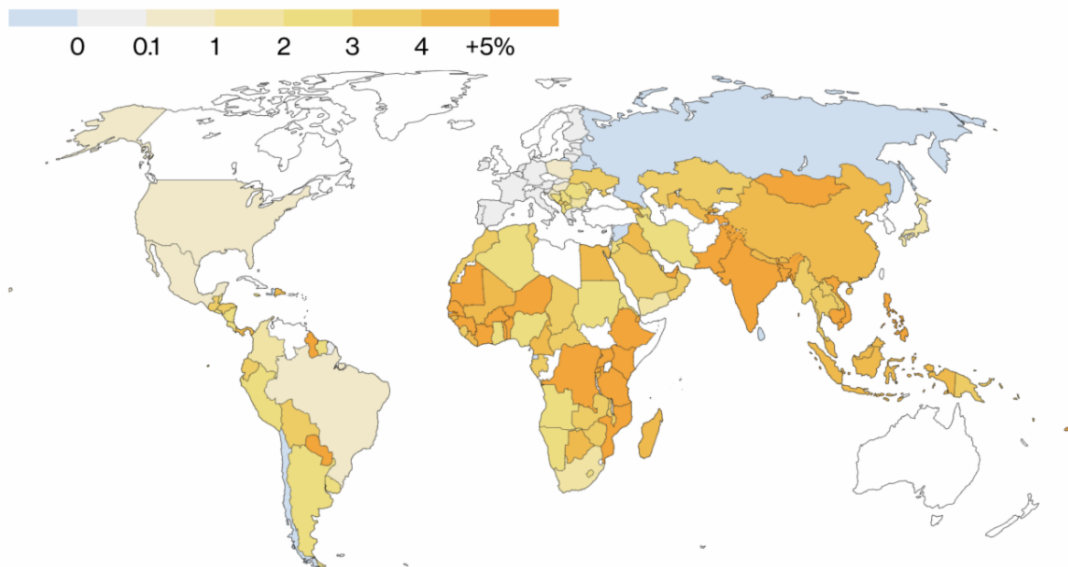
Bloomberg: World Economy’s Soft Landing Hopes Boosted as 2023 Begins

2023년, 세계 경제 연착륙 할 수 있을까?

-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재개장되고, 에너지 부족이 우려되었던 유럽의 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세계 경제가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
- 그러나 연준 등 각국 중앙 은행들이 여전히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전망도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올해 후반의 침체 위험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 중국의 재개장이 석유 등의 수요와 가격을 자극한다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인 침체 가능성은 줄었지만 올해 말이나 2024년에는 여전히 70% 정도의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World Bank Predicts Global Growth of Just 1.7% This Year

Change in GDP (YoY) is set to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Source: World Bank
Note: Mapped data are for distinct economies.

Bloomberg 기사

WSJ: China’s Export Decline Deepens, Threatening Growth

중국 수출 감소...성장 동력 잃을까 우려돼

- 중국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중국의 수출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9.9%였다.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 10.5%보다는 적었지만, 2020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12월 수입은 7.5% 감소했다.
- 그동안 중국의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 호황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의 중국산 제품 수요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중국 내수 경제가 코로나 봉쇄, 부동산 침체, 재유행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으로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내수 회복과 수출이 모두 둔화된다는 것은 2022년 8천 7백 76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중국의 무역 흑자가 앞으로 4분기 동안 줄어들 것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는 중국 노동시장에까지 파급을 미칠 수 있기에, 중국이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는 전환 과정이 험난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Tesla Slashes Prices Up to 20% in Broad Bid to Boost Sales 테슬라, 판매 촉진하려 자동차 가격 20%까지 인하

- 테슬라가 미국과 유럽의 주력 시장에서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동차 가격을 내렸다. 미국에서 모델 Y는 가격의 20%인 1만3천 달러, 모델 S는 2만1천 달러 인하한 상황. 테슬라 주가는 오늘 오전 5.8% 폭락했다.
-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이러한 가격 인하는 단기 총 마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인하된 가격 수준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았다.
- 한편 테슬라는 모델 Y가 SUV 기준보다 가벼워 EV 세액 공제 가격이 승용차에 해당하는 5만5천 달러의 상한제를 적용 받는 등의 걸림돌과 이로 인한 수요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Inside the Hottest Fashion Chain in the US Artizia는 어떻게 미국에서 가장 '핫'한 패션 체인이 되었나

- 캐나다의 패션 체인 Artizia의 지난 1년간 미국 매출이 약 80% 급증해 7억 4천5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 2세대를 장악하고 있다. 주가는 지난 2년간 약 75% 상승했다.

- Artizia는 'everyday luxury.' 를 컨셉트로 고객 한 명 한 명의 경험에 세심하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사용했다. 탈의실에 거울을 두지 않고 공용 공간에 두어 고객들이 그 공용 공간으로 와서 자신의 옷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했고, 온라인 주문을 할 때에도 쇼핑백에 정성 들여 포장해 직접 쇼핑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낸다. 할인 행사는 거의 없다.
- 이 회사는 광고 마케팅에 힘을 쓰기보다 매장을 확대하며 인지도를 넓혀왔고,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활용하였다.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가진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어 GAP, H&M, FOREVER 21 등의 경쟁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CNBC: Nike CEO touts strength in Gen Z China shopper as Covid disruptions dent regional sales

나이키 CEO, 팬데믹 불구 “중국 Z세대 수요 강하다”

- 나이키는 이번 주 목요일 코로나로 인한 경제 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Z세대 소비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군의 현지화에 성공해 강한 수요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 분기 나이키는 중국 코로나 제로 정책의 여파로 매장 1천5백개가 문을 닫았고, 매출이 2021년 대비 22% 줄어들었다. 중국은 나이키에게 3번째로 큰 시장이다.
- 나이키는 다른 소매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재고 과잉과 씨름해왔고, 5월까지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도매상에서 벗어나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략으로 최근 분기 도매 수익이 19% 증가했다.

CNBC 기사

WSJ: UnitedHealth Revenue Climbs as Premiums Rise

UnitedHealth, 보험료 올려 수입 증가

- 건강 보험 회사 UnitedHealth가 보험료와 의료비의 상승에 힘입어 4분기 연속 두 자릿수 수익 증가를 보고했다. 4분기 수익은 12% 증가한 8백27억 9천만 달러 증가했고, 보험료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6백47억 달러로 늘었다.
- UnitedHealth는 생활비 상승과 노동시장 긴축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해 의료비를 빠르게 상승시키면서 보험료 역시 급격히 오를 것으로 경고한 바 있다.
- 한편 UnitedHealth는 4천 6백만 명의 보험 플랜 등록 고객과, 1억 2천 9백만 명의 의료 서비스 Optum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WSJ 기사

CNN Business: Pepsi is changing its Zero Sugar recipe 펩시, 무설탕 음료 레시피 바꾼다

- 펩시의 'Zero Sugar' 음료의 맛이 곧 바뀌게 된다.
- 이 회사는 오늘 금요일 이 음료에 새로운 감미료를 넣고 실제 콜라 맛이 나도록 더욱 신성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물론 카페인 함유량도 낮추겠다는 것이다.
- 무설탕 음료수중에서 콜라맛이 제대로 나도록 새로운 음료 기술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Business 기사

TechCrunch: News aggregator SmartNews lays off 40% of US and China staff, with further reductions planned in Japan SmartNews, 미국, 중국, 일본에서 대규모 감원

- 도쿄에 본사를 둔 뉴스 집계 웹사이트이자 20억 달러 규모 앱을 운영중인 SmartNews가 이번주 목요일 미국과 중국 인력의 40%인 약 12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직원들 역시 “자발적 퇴사”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SmartNews의 이번 감원은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TT) 시행과 테크 기업의 다수 해고를 초래한 거시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 한편 SmartNews는 2012년 설립 이후 머신 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기사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치열한 뉴스 앱 경쟁 시장에서 4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끌어모으며 “더블 유니콘(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데에 성공한 바 있다.

Tech Crunch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인플레이션 둔화에 경제 연착륙·골디락스 기대까지 나와

미국 물가상승률이 둔화하자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골디락스(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까지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

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6.5% 올라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소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보다도 0.1% 하락했는데, 전월보다 CPI가 하락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하자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이 0.25%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더 유력해지는 동시에 연착륙과 연말 금리 인하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